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전,현직 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장로교 연계 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소수 인종 미래 지도자를 육성합니다.



HELPING HEARTS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헌금하는 방법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pcusa.org/christmasjoy
에서 신용카드로
하시거나



91999 번에
CHRISTMASJOY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pcusa.org/christmasjoy
에서도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습니다.

50%

어려움에 처한 전,현직 교회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주디 맥밀리언 박사는 갑작스럽게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사역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꽃집에서 일하며 자신을 재정비했지만,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같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던 한 친구가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으로 자원이 마련되는 연금국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아칸소주 벨라비스타 장로교회의 목사인 주디는 “언제 재정 지원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은혜이자 사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시기에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서 하는 일과 동료의 관심, 그리고 우리 교단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50%

소수인종 공동체 인재를 육성하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다



라트렐 클리포드 우드는 비즈니스와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스틸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자이자 리더가 되기를 꿈꾸었고, 역사와 역사에서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는 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회 정의가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틸맨에서 이론 성취 중 하나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건강식 이니셔티브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워싱턴 DC에서 ‘Congressional Black Caucus Foundation’의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앨라배마 어라이즈 (Alabama Arise)의 기아 정책 옹호자로서 빈곤으로 소외된 앨라배마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지적 탁월성 추구, 개인 역량 발전, 공동선에 대한 헌신을 만드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스틸맨 방식’을 세상에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회복적 정의를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라트렐은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스틸맨과 같은 학교가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이들의 길을 예비한다고 믿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